

브릭스(BRICS) 회원국 확대와 시사점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강명구 (mgk101@kdb.co.kr)

- ◆ BRICS는 '24.1.1일 사우디, UAE, 이집트, 이란, 에티오피아의 신규가입을 통해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회원국 확대
- ◆ 회원국 확대로 지리적·경제적 영역을 확장한 BRICS는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G7을 위시한 서구 중심 국제질서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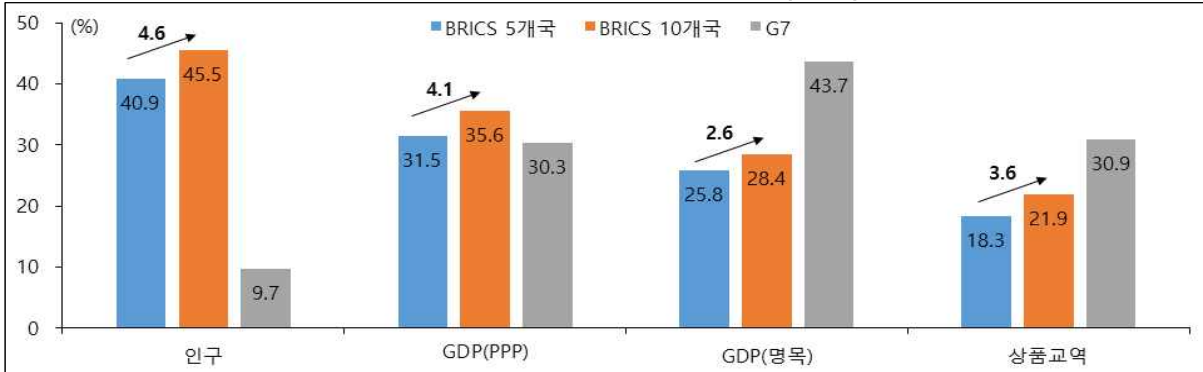
□ BRICS는 '24.1월 회원국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

- BRICS는 브라질(Brazil), 러시아(Russia), 인도(India), 중국(China), 남아공(South Africa) 5개국이 다자간 협력을 위해 구성한 협력체
 - '01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(Jim O'Neil)이 빠르게 성장하는 브라질·러시아·인도·중국을 묶어 BRICs로 명명한 이래, 4개국은 '06년 각료회의, '09년 정상 회담을 통해 상설기구화하여 G7을 견제하는 개발도상국 블록을 형성
 - '10년 남아공이 참여하며 BRICs의 's'를 대문자 'S'로 바꾸어 BRICS로 통칭
- BRICS는 '24.1.1일 사우디, UAE, 이집트, 이란, 에티오피아의 신규가입을 통해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회원국을 확대
 - 15차 BRICS 정상회의(남아공, '23.8.22~24일)에서 5개국의 신규회원 가입을 승인*
 - * 아르헨티나도 가입이 승인되었으나, '23.12월 집권한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가입을 취소

□ 회원국 확대로 BRICS는 지리적·경제적 영역 확장과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적 문제 해결을 도모

- 기존 유럽·아시아·남미·남아프리카에서 MENA*(사우디·UAE·이집트·이란)와 동아프리카(에티오피아)로 지리적 영역을 확장
 - * Middle East & North Africa(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)
- 기존 5개국에 신규 5개국을 더하면 '22년 기준 전세계 대비 인구는 40.9%에서 45.5%로, GDP(구매력평가 기준) 비중은 31.5%에서 35.6%로, 교역규모 비중도 18.3%에서 21.9%로 증가하여 BRICS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

BRICS의 인구, GDP, 상품교역 비중('22년)



자료 : IMF, World Bank, WTO

- 회원국들은 상호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문제 해결을 기대
 - 서방의 경제재제 극복과 원유·가스·곡물 등의 새로운 수출 활로 모색, 식량·에너지 등의 안정적인 수급,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도모
 - 원유·천연가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를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 등 입지 강화
 - '22년 생산량 기준, 원유는 사우디 2위, 러시아 3위, 중국 6위, UAE 7위, 이란 8위, 브라질 9위, 천연가스는 러시아 2위, 이란 3위, 중국 4위, 사우디 9위

BRICS의 원유·천연가스 매장량¹⁾ 및 연간 생산량²⁾

구분	원유				천연가스			
	매장량 (억톤)	비중 (%)	생산량 (백만톤)	비중 (%)	매장량 (조m ³)	비중 (%)	생산량 (억m ³)	비중 (%)
기존 5개국	206	8.7	949	21.4	47	25.4	8930	22.1
10개국	966	40.8	1,910	43.2	94	50.0	1,395	34.5

주 1: 2020년 기준
 주 2: 2022년 기준

자료: Energy Institute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

□ BRICS의 확장은 G7을 위시한 서구 중심 국제질서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

- 인도네시아, 베트남, 베네수엘라, 태국, 세네갈,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, 바레인 등 40개국 이상이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했거나 희망하고 있어 향후 BRICS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
- 경제적 영향력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상호지지 및 의견 단일화를 통한 정치·외교적 협상력 확대를 G7을 위시한 서구 중심의 국제정치질서에 대한 대안세력으로서 BRICS의 역할 강화가 예상

- 15차 BRICS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교역에서 자국통화 결제 비중을 확대하고 달러화 사용을 축소하는 논의가 다루어져 脫달러화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
 - '23.11월 러시아 제1부총리는 러·중 무역에서 루블화·위안화 결제 비중이 95%에 달한다고 밝혔으며, '23.7월 인도·UAE는 양자간 교역에서 현지통화 사용을 촉진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등 자국통화 결제 비중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
 - 특히 원유의 주요 생산·수출국*과 수입국**을 포함하고 있어 회원국간 원유 거래에 달러화를 배제하는 정책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
- * '22년 기준 사우디(1위), 러시아(2위), UAE(6위) 등 / ** '22년 기준 중국(1위), 인도(3위) 등
- 신흥·개도국 앞 개발금융 지원에 있어 BRICS 회원국 주도로 설립된 NDB (New Development Bank)의 역할 및 위상 확대가 예상됨
 - 회원국과 신흥·개도국 지원을 목표로 하는 다자개발은행으로 '15년 BRICS 5개국 주도로 설립, 본부는 중국 상하이에 위치
 - '21년 방글라데시·UAE, '23년 이집트가 신규 회원국으로 참여하였으며, '23년 말까지 96개 프로젝트에 328억 달러 지원

국가별 NDB 출자금 현황

(단위 : 백만달러)

브라질	러시아	인도	중국	남아공	방글라데시	이집트	UAE	합계
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942	1,196	556	52,694

자료 : NDB, New Development Bank

- 다만 회원국간 경제력 차이와 문화적 이질성이 상당하고 국가별로 BRICS를 주도하는 러시아·중국 또는 G7·서방과의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에 대한 합의 도출 및 이견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
 - 사우디·UAE·인도는 G7·서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·중국·이란은 대립 관계
 - 중국·인도는 국경분쟁을 겪고 있으며, '23년 신규 회원국 승인 협의시 중국이 추진한 파키스탄의 가입은 인도의 반대로 무산